

# 전국민 대상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확대

## 인구조 변화 영향·대응방향

홍남기 부총리 “인구지진 현실화 경제·사회 전반 부정적 효과 가속”

근무, 학점인정 ‘맞춤형 학사제도’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확대

가족개념 재정립, 1인가구 지원 강화 부실대학 퇴출 등 한계대학 통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해 국민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거주비자(F-2) 발급도 확대된다.

초등돌봄 연장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돌봄 체계도 개편한다. 또 법령상 가족 개념을 넓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 압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과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떨어졌다. 또,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당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통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한 학년도 확대한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운영도 다양화하고,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을 허용한다.

우수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유망산업 관련 외국 전문 인력 대상 거주비자(F-2) 발급도 대폭 늘린다.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 대상으로 원격 근무 비자도 새로 마련한다.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법령상 가족개념도 확대된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을 둘러싼 위법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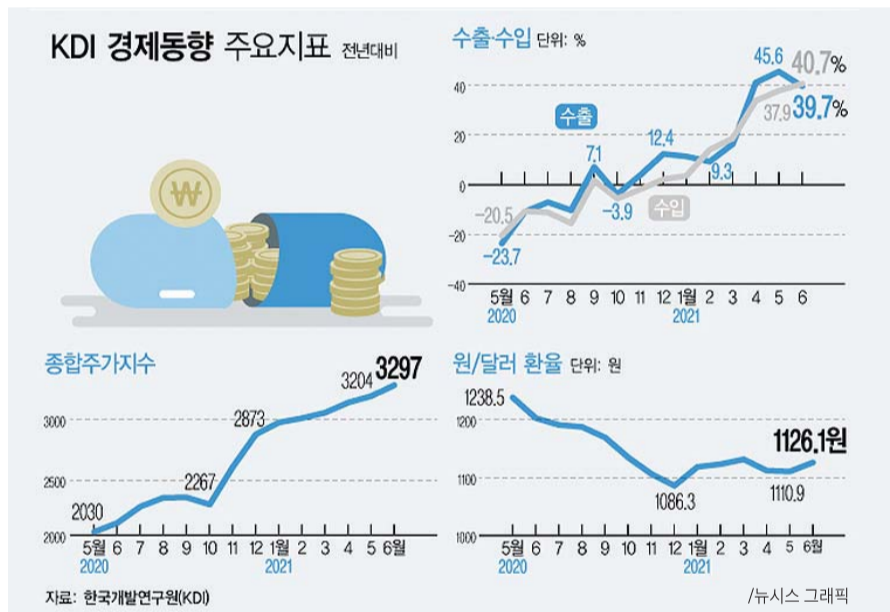
부 논란이 일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간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 등 한계 대학의 통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자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응시 및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말한다. 국고 보조사업 패키지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경기 회복세 완만... 불확실성은 여전”

KDI “변이 바이러스 확산 걸림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완만한 경기 회복세 진단을 석 달째 이어갔다.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탓에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높은 수출 증가세와 경제 심리지표의 개선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병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진단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란 변수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월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방역 조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주요 지표는 경기의 완만한 회

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수출의 경우 39.7% 늘어나며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4.4%)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제품(79.6%)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5월 전산업생산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32.1%), 전기장비(28.1%) 등을 중심으로 15.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창고업(10.3%), 도소매업(3.2%)에 힘입어 4.4% 늘었다.

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달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5.2)보다 5.1포인트 오른 110.3을 기록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가 급감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기여효과가 작용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2.4%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과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세종=원승일 기자

## GTX-D 강남행 불발에도 김포 집값 ‘들쭉’

한강호반베르디움 전용 59㎡ 한달만에 호가 1억 오른 5억

서부권광역급행철도노선 이른 바 GTX-D노선의 강남행 불발에도 김포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장기동 한강센트럴하이1단지 전용 84㎡는 현재 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6억23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한강호반베르디움 전용 59㎡는 지난달보다 호가 1억원이 오른 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구래동에 있는 한강신도시푸르지오 3차 전용 59㎡는 호가가 소폭 상승한 4억75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4억60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김포한강아이파크 역시 전용 75

㎡가 5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김포는 지난해 인근에 있는 고양, 파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찍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조정대사이역으로 지정된 후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될 예정이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결론 났지만 아파트 매매 호가는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노선이 강남은 가지 않지만 일부 열차가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난 다음 GTX-B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철로를 통해 용산역까지 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을 잇는 광역철도 41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의 강남 직결 무산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지하철 2·5호선을 인천·김포 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전주 대비 0.10% 올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철도망 연결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wj964@

## 포스코강판, 브랜드 ‘인피넬리’ 론칭

자사 컬러강판 제품 통합

포스코강판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 컬러강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다.

포스코강판은 자사의 컬러강판 제품을 통합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넬리’(INFINELI)를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인피넬리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Infinite)이란 뜻의 단어와 아름답게·정교하게(Finely)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다양한 색상·디자인·기능성을 바탕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강판이란 의미를 담았다.

제품으로는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을 가진 프린트강판(PosPRINT), 고해상

도 잉크젯 프린트강판인 포스아트(PosART), 불연(PosNC)과 항균 기능을 가진 컬러강판(PGS항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상을 볼 수 있는 카멜레온 강판(PVDF) 등이 있다.

포스코강판은 인피넬리 브랜드 론칭을 계기로 기존 제품들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간재와 가전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해왔으나, 앞으로는 컬러강판의 장점을 극대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윤양수 포스코강판 사장은 “인피넬리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객사와 상생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포스코강판의 컬러강판 브랜드 인피넬리 브랜드 이미지.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포스코강판은 이달부터 고객사인 승일실업과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피넬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를 인피넬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매일 SNS를 통해 인피넬리를 사용하는 고객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양성운 기자 ysw@